질문. 강륜희

Q1. 이배경 작가님은 작품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오던 일상과 개념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 19와 펜데믹으로 인해 일상이 사라진 현 상황은 작가님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Q2. 오랜 시간동안 미디어아트 작업을 진행해 오신 이배경 작가님에게는 특히나 디지털과 매체의 변화가 각별하게 느껴질 듯 합니다. 어떠한 변화가 가장 크게 와닿았나요?

Q3. 지금도 시시각각 기술의 발달에 따라 매체와 그 매체의 활용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 있나요?

Q4. 이배경 작가님의 작가노트에서 어떤 매체로 작업하는지 질문하였을때, 작가는 "중력상태, 디지털분야, 유전학."이라고 대답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유전학 관련해서 어떤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어떻게 유전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Q5. 이배경 작가님은 시간, 몸, 공간, 바람 등과 같은 일상적이고 본질적인 주제에 집중한 작품을 여럿 선보였는데, 작가 본인이 생각하는 '본질', 혹은 '본질적인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Q6. 이배경 작가님이 생각하고, 작가님 나름대로 정의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궁금합니다.

Q7. 작가 노트와 작품 설명을 읽었을 때, 이배경 작가님은 관객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작업에서 작가님 스스로는 자신의 질문에 정답을 내리는 편인가요? 내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Q8. 이배경 작가님이 아직까지 다루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다루고 싶은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건가요?

Q9. 이배경 작가님이 본인 스스로와 본인의 작업 등에 해시태그를 붙인다면 어떻게 붙이고 싶으신가요?

Q10. 이배경 작가님은 미술의 사회적 역할,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김반석

Q1. 공공 미술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궁금합니다.

Q2. 개인적으로 미디어아트라는 장르가 감각의 확장으로 읽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Q3. 지금까지의 작업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작업과 이유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Q4. 시각적 이미지를 청각화하여 이미지를 재인식하는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여러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어떻게 시작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Q5. 미디어 아트 이후 새로운 형식에 대해서 예측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새로운 형식이 반영할 시대에 대해서 예측해주셔도 좋습니다.

Q6. 인터랙티브 아트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보내는 지금 사람들은 비대면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향유하는 방식과 작가와 관객이 소통하는 지점에서 비대면의 관계는 성립할 수 있을까요?

Q7. 관객들의 선택적 수용도 결국에는 작가의 설정과 의도 안에서 소통하는 부분들로 일방적인 전달이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 창작자와 향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소통은 어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Q8.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서 얻으시는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과 요즘 고민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재밌게 읽은 책이나 영화를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Q9. 작가님의 작업들이 질문이라면 그에 대한 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얻으시는지도 알고싶습니다.

Q10. 시간과 공간이라는 주제는 작가님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질문. 문주영

Q1. 오랜 기간 시간, 공간, 몸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해오고 계신데, 그런 키워드들에 집중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Q2. 2001년도 'Selfmotion'작업 등을 보면 관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작품을 통해 예술작품에 대한 다양한 인상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예술작품과 관객이 분리된 채 별개의 요소로 남지 않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디지털이라는 '매체'가 핵심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술가, 작품, 관객이 분리된 채 남아있었던 이유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혹은 '매체'의 한계였다고 생각하는지)

Q3. 지금까지 했던 작업 중 어떤 이유로든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Q4.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감각의 변화 혹은 확장, 포스트 휴면, AI시대 등에 관해 제기되는 문제점들이나 우려의 시선들도 많은데, 이와 관련한 작가님의 2010년도 'Spacecognition'작품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테크놀로지에 따른 인간 감각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작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려의 시선에 가까운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지)

Q5. 대학시절 독서를 좋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당시 읽었던 책들 중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책이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비교적 최근 읽은 책 중 현재 작업을 하는데 있어 기반이 되었던 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Q6. '자유가 반복된다면 이것이 자유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2009년도 'repeated freedom #2' 작품 설명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현대 사회가 사람들에게 자유롭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사회라는 말에 공감이 되었는데요, '자유의 반복'을 어떤 형태로 관객에게 전달할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종적으로 포퍼머의 반복되는 동작을 통해 사회를 표현하기까지 작가님의 구상 속에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Q7. 현재까지 심층적으로 다뤄진 시간, 공간, 감각의 확장, 상호작용, 자유, 관계 등의 키워드 이외에 차후 작품에서 다룰 예정인 작가님의 새로운 관심사는 어떤 것이 있을지 기대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8. 작품을 보면 공학적인 요소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공학을 전문적으로 전공하지 않아서 생기는 한계나 어려움은 없었는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Q9. 특정 종류의 미디어가 특정 종류의 감각을 대체하고 오감의 비율을 바꿔 인간의 감각과 사고, 행동을 변화 시켜 결국엔 새로운 사회 환경을 탄생시킨다는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의 이론을 토대로 2010년는 'spacecognition'에서는 시각의 확장을 이야기했는데요, 혹시 다른 감각기관의 확장을 주제로 진행예정인 작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Q10. 작업 전 구상 단계의 시간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며 지내시나요?

질문. 선희라

Q1. 메트로폴리스 메타포에 사용된 64개의 에어모터 중 일부에 작동 오류가 생기면 정육면체가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게 되나요? 전시 중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요?

Q2. 영상과 미디어아트를 공부하기전 조소과를 전공했는데 이 점이 본인의 미디어 작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Q3. 공공미술 작업의 어떤 지점에서 매력을 느껴 작업하시나요? 앞으로 작품활동에서 공공미술은 어느 정도의 부분을 차지하게 되나요?

Q4. 자연과 도시의 분리보단 도시를 하나의 새로운 자연으로 보고 작업을 하시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로 자연은 더욱 자연으로 도시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 시대가 작가님의 앞으로의 작업계획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Q5. 의도적으로 작품의 재미적 요소를 일정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재미적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인가요, 덜어내는 방식인가요? 그 방식은 어떤 과정을 통해 작업이 진행되나요? (예시 작품을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Q5-1. 덜어내는 방식이라면 좀 더 재미를 주고 싶었는데 관람을 위해 인터페이스를 조절하는 게 아쉬웠던 작업이 있으신가요?

Q5-2. 관객에게 작품을 제작한 본의가 전달되는 과정을 위해 재미적 요소로 계산하는데, 미디어아트 창작 과정에 주목하고 이를 가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 아나토미'와 같이 외부적으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환경 또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재미적 요소를 더 가미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Q6. 미디어 발전에 맞춘 하이테크 기술보단 이를 좇지 않는 로우테크 기술의 사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갈수록 벌어지는 미디어의 발전 속도와 관객의 수용 가능성 사이의 간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7. 요즘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나 기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Q8. 작업의 테크니션에 있어 어느 지점에서부터 외부의 개입이 진행되나요? 주로 협업하는 팀이나 업체가 있으신가요?

Q9. 2008년에 앨리스온과의 인터뷰에서 소위 '작가의 손맛'이라고 하는 게 미디어 아트에서도 가능하며 손맛이 묻어나는 작품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10여년이 지난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작품의 손맛은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지 최종본

Q1.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배경 작가님은 작품을 통해 당연하게 여겨오던 일상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작업을 여럿 선보이셨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모두의 일상이 전과는 많이 달라졌는데, 작가님의 생활과 작업 환경 또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작품들을 보면 공학적인 요소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품 속 기술들을 어느 지점까지 직접 작업하는지, 작업 중 공학을 전문적으로 전공하지 않아서 생기는 한계나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Q3.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며 '질문'이 중요한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5년 〈life circulation〉의 태초에 관한 질문, 2007년 〈Relationship〉의 관계에 대한 질문, 2012년 〈metropolis metaphor〉의 자연의 본질에 관한 질문 등 작품마다 생각해 볼만한 질문들을 던져 주셨는데, 이렇게 작업을 통해 질문하는 것은 작가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Q4. 미디어가 특정 종류의 감각을 대체하고 오감의 비율을 바꿔 인간의 감각과 사고, 행동을 변화시켜 결국엔 새로운 사회 환경을 탄생시킨다는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의 이론을 토대로 〈spacecognition〉(2010)에서는 시각의 확장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감각기관의 확장을 주제로 진행 예정인 작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Q5.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어느 때 보다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이로 인한 인간 감각의 확장, 포스트 휴면, AI 시대 등에 관해 제기되는 문제점들이나 우려의 시선도 많습니다. 테크놀로지에 따른 인간 감각의 변화와 미래 사회의 모습을 어떤 방향으로 예측하는지 작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Q6. '자유가 반복된다면 이것이 자유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repeated freedom #2〉(2009)의 작업 노트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자유의 반복'을 퍼포머의 동작으로 표현하셨는데 혹시 이외 고민하신 다른 표현 방법들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Q7. 작업하실 때 작품의 의도가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각적 화려함과 같은 요소를 제한하고 작업을 진행하는데, 시각적 화려함과 같은 재미 요소를 바라는 관객의 기대에 대한 고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Q8. 작품 제작 이외의 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하며 지내시나요? 그런 시간이 작품에 영향을 끼치는지, 작품의 영감은 주로 어디서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Q9. 작가님의 공공 미술 작품들을 살펴보면 꿈, 유대감, 행복과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담겨있습니다. 2017년 부산 썬텀프리미어 호텔에 설치된 〈Dream〉에서는 현실을 이겨내는 요소로서의 꿈과 자유를 이야기 하셨는데, 작가님도 여러 작업을 하시며 현실의 벽에 부딪히거나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작업이 뜻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거나, 슬럼프를 느낄 때 작가님은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시나요?

Q10. 현재까지 심층적으로 다뤄진 시간, 공간, 감각의 확장, 상호작용, 자유, 관계 등의 키워드 이외에 차후 작품에 반영될 작가님의 새로운 관심사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배경 작가님이 본인 스스로와 본인의 작업 등에 해시태그를 붙인다면 어떤 키워드를 붙이고 싶으신가요?

작가 소개

이배경

시간, 공간, 몸 사이의 접점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문화를 주제로 인터랙티브 설치 및 다양한 미디어 설치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영상과 인터랙티브 작업을 통해 시간과 공간, 개인의 경험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미디어 설치작업을 중심으로, 작품과 관람객과의 소통을 통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감각의 확산과 새로운 인식의 세계를 열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해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소통의 체계와 기능의 무한한 가능성을 여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